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I

(요 6:52-59)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의 특성을 말할 때에 교회는 우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연합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 없는 평화는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항상 진리 가운데 있기를, 늘 평안과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 불신과 다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52절)

유대인들의 다름은 예수님이 생명떡으로 세상에 왔다고 가르치셨을 때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떡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를 인자라고 하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서 그런 일은 가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다름은 교회의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다투는 이들에게 영원한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시며 (53-58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다름은 아주 자연스런 다름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방화범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로마를 다시 창건하기 위해 로마 시에 불을 질렀는데 온 시민들이 방화범을 잡겠다고 덤비니까 악한 네로 황제가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흡혈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유괴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유괴범을 잡는다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침 성찬예식을 하는 중에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을 찢은 살이다 받아 먹어라”하는 말을 듣고 위에 보고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흡혈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네로를 비롯한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신앙적인 각도가 아닌 사회적인 각도로 기독교를 박해하여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2. 그리스도의 연합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54-5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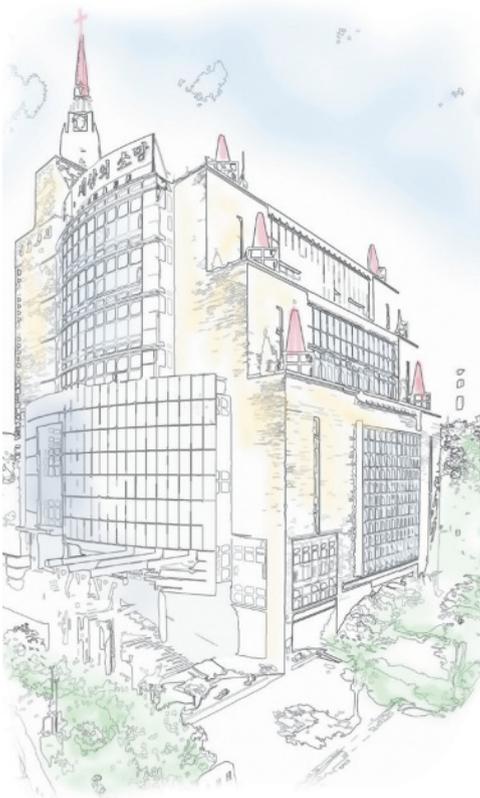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53절의 ‘먹는다’, ‘마신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헬라어로는 현재형이 아닌 단순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과거형은 사건이 예전에 단 한 번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성찬식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성찬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과거형으로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찬식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때이고, 성찬식은 훨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 주간에 생긴 것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트로본’이라고 하며 ‘기쁨으로 섭취한다’, ‘즐겁게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그와 함께 즐겁게 연합하게 됩니다. 또한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는 믿는 자일뿐 아니라 오는 자를 말합니다(35절). 외아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영생을 얻느냐 하면 주님을 보는 자(to see) 입니다(40절).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과거의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 되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을 택한 것이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한마디 원망도 않으시고 대신 매를 맞고 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볼 뿐 아니라 귀로 듣고 그 사실을 믿으며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다음 주 계속)



2021 홍해작전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2021년 6월 6일(주) - 6월 25일(금)

개전예배 : 6.6(주) 찬양예배 / 손달익 목사

6.7(월)-6.16(수) 새벽 5시 30분 / 서명철 목사 · 장석남 목사 · 조원영 목사

특별새벽기도회 : 6.17(목) - 6.25(금) 새벽 5시 / 손달익 목사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작전으로써,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지난 교회의 혼란 속에서 홍해작전 기간 중 교회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고 감사드렸으며 찬양을 돌려 드렸었다.

이제 2021 홍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우리 서울교회와 우리나라와 교우,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한다.

다음 주 6월 6일(주) 찬양예배 시 개전예배를 갖는다.

I. 주제 :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II. 주제 성구 :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 27:5)"

III. 주제 찬송 : 210장(시온성과 같은 교회)

IV. 행동강령 :

- (1)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 (2)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앞의 홍해를 가르자!

(3)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V. 기간 및 일정 : 6월 6일(주) - 6월 25일(금)
6.7(월) - 6.16(수) 새벽 5시 30분 - 새벽 6시
서명철 목사 · 장석남 목사 · 조원영 목사

VI. 특별새벽기도회 :
6.17(목)-6.25(금) 오전 5시 - 6시 / 손달익 목사

- VII. 찬양대 순서**
- 17일(목) : 가브리엘찬양대
 - 18일(금) : 할렐루야찬양대
 - 19일(토) : 베들레헬찬양대
 - 21일(월) : 은빛찬양대
 - 22일(화) : 임마누엘찬양대
 - 23일(수) : 가브리엘찬양대
 - 24일(목) : 호산나찬양대
 - 25일(금) : 시온찬양대

- VIII. 조직**
- 부장 : 안인호 장로 - 지도 : 조원영 목사
 - 차장 : 노제현 집사
 - 기획분과 : 이겸손
 - 예배분과 : 황병석 / 예배위원
 - 찬양분과 : 김은석 / 찬양대
 - 동원분과 : 김승록 / 박상훈 이민호 장상국 교구간사
 - 홍보분과 : 이용길 / 김규태 유은경 유외숙 허숙
 - 봉사분과 : 김정제 / 권사회
 - 차량분과 : 김광태 / 스테반회 차량부
 - 재정분과 : 임승한
 - 교육분과 : 장윤기 / 교회학교 부장

2021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1.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절그릇을 깨뜨려 주시고 거듭남의 새 사람을 힘있게 하옵소서!)
 5.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6.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 홍해작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두 발로 굳게 서는 성도들!



안인호 장로
(2021 홍해작전 부장)

2021 홍해작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면 6일 현충일부터 25일 한국전쟁 발발일까지 20일간 홍해작전으로 모였습니다. 금년에도 6월 6일(주일) 개전예배를 시작으로 25일(금)까지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제로 2021 홍해작전을 펼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군대에게 처참한 결과를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고난 후에 모세에게 허락하신 승리,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교회 분쟁의 소용돌이, 환난 속에서 주님께 서 우리를 주의 초막과 장막으로 피할 곳을 예비하신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호, 인도, 구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비바람에 쓸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

석은 자가 아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두 발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의 홍해작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교회와 국가, 개인의 홍해를 건너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총회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교회의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에 걸맞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다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 행복한 시간되기를 원합니다.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후보 전원 피택 공동의회 통과

지난 주일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당회에서 추천된 안수집사, 권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양예배 직후 거리두기를 통해 본당 2,3,4층을 짝 채운 가운데 공동의회가 개최되었고, 추천된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함에 따라 교단헌법에 따라 전원 피택집사와 피택권사로 선출되었다.

이후 교회규정에 따라 임직에 필요한 훈련과 임직 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여건상 다음 기회로 미뤄달라는 분들은 부득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추후 교육일정에 따라 3개월간 임직에 필요한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 설립주일 이후 찬양예배 시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정식 임직을 하게 된다.

교회회복을 위하여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주의 신실하신 많은 일꾼들이 피택된 것에 감사하며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거쳐 전원 임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2018년 3월 불법용역 동원 교회진입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와 용역원 등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이 오는 6월 15일 열려 주요 증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예정이고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을 상대로 선고된 38억원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오는 6월 17일 시작하게 된다.

교회분쟁 이후 해마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 안식년본안사건 승소판결 등 결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시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흥해작전에서는 서울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온 성도들의 집중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① ③ ④ 성도 명부확인 및 투표용지 배부 ② 차도훈 장로의 개회 기도 ⑤ 6년만에 열린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 본당 2, 3, 4층을 가득 채운 성도들 ⑥ ⑦ ⑧ 기도 준비하고 신중하게 기표하는 성도들 ⑨ 개표 ⑩ 공동의회서기 임상한 장로의 결과 발표 ⑪ 임시당회장 강희창 목사의 폐회 기도
사진 : 유은경 집사 (편집부)

제 57회 학술원 공개 세미나

COVID-19 시대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지난 24일(월) 오후 2시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57회 학술원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상규 박사(국가와 교회의 관계), 박흥규 박사(사회와 교회의 관계), 노영상 박사(자연 환경과 교회의 관계), 김의창 박사(이승구 박사 공동 집필, 회복해야 할 신학, 목회, 교육, 선교의 본질과 현실)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가 끝난 후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목사)의 사회로 패널토의가 있었다.

순서에 앞서 가진 경건회에서 손달익 목사(서울교회 담임목사)는 '산 제사의 삶'(롬

12:1-2)이란 제하의 설교를 하며 "산 제사의 삶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말한다. 레위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고, 전부를 다 바쳐야 했고, 제사 후에 흔적이 남지 않아야 했다. 번제는 자기 소멸의 과정이다. 땅에서 남겨질 흔적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일관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 빛 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두 산제사의 삶을 살며 COVID-19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후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목사)는 참석자들을 향한 인사 말씀에서 "2년 가까이 지속된 COVID-19 시대는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와 치유자시라'라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원망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찾아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므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자"고 했다.

취재·정리 : 허숙 권사 (편집부)



① 행사 전 경건회에서 '산 제사의 삶'이란 제하의 설교를 한 손달익 목사 ② 세미나 발제자들 ③ 이종윤 원로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

제15대 피택 집사 명단(가나다 순)



강원배



공민호



김관섭1



김광래



김광성



김규원



김금재



김대훈



김동욱



김선우1



김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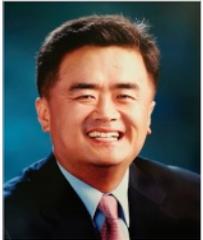
김성택



김세호



김영진



김영표



김정훈



김준목



김지수12



김철수



김태원2



김현중3



노선균



라지용



박민서



박성국



박용상



박준희



박태규



박현조



배효복



성춘모



소훈



송영재



신재곤



양승호



여유현



오만욱



오명길



오병호



오천수



유동훈



유성택



유은철



윤주일



윤효민



이강전



이경진5



이병천



이승준1



이영준1



이영훈



이용길



이용호



이원석2



이일영



이종범



이중욱



이준태2



임대훈



임종현



장경원



장윤식



전영돈



정성우



조서현



채교천



최영철



최영철3



최읍



최익진



최인식



하상영



한대석



홍석현



홍성민1



홍한규



제15대 피택 권사 명단(가나다 순)



곽명자



권진순



권택숙



김경순1



김경자4



김명숙12



김미선



김민희2



김선자2



김세용1



김순진



김애리1



김양희2



김연화1

순례자



김영숙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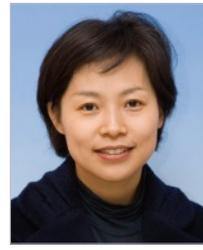
김영숙11



김은숙1



김은숙9



김은정2



김인아



김정민



김정순6



김정애4



김정희12



김진현3



김화옥



김희순1



김희정



나현주1



남은희



모양순



문은영



박길희



박래경



박미영3



박미정



박미현2



박민숙



박영실



박은영



박정애



박정희



박진주



박한옥



박혜옥



박혜정3



서정현



성수영



송미정



송재wel



송희숙



양길sun



양도hyun



양미sook



오용i



옥희sook



유미yeong



유외sook



이gapyeon



이경rim



이giwon1



이미yeong2



이성희4

순례자



이소명



이영애4



이옥수



이재숙2



이향수



임미경1



임춘자1



전성희



전숙진



전인숙1



정금희1



정선경



정윤희



정을순



정진영2



정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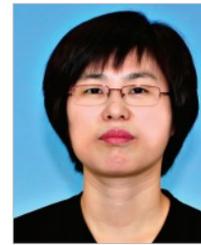
조경숙3



차주연



채혜숙



최정숙4



최종금



최진이



한명자



한양옥



허경화



허미옥



황금선



황숙현

“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3-13)

”

지난 주 우리교회는...



지난 주(5.23) 3부예배 후 손달익 목사는 은퇴장로들과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① ② 지난 주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의 혼란 중에 주일 설교를 담당하여 주신 서창원 목사께 당회는 교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③ ④ ⑤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된 손달익 목사와 박영숙 사모의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하절기 목사복 착용

6월 6일(주)부터 주일예배에 흰색 카운을 입으며 교역자들은 재킷을 입지 않고 반팔 목사복만 입고 심방,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임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황수지(육사생도) 한기형 김은호 유성혁
감동현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호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31일	월	욘 11-14		요 1-5	
6월1일	화	욘 15-18		요 6-8	
6월2일	수	욘 19-21		요 9-12	
6월3일	목	욘 22-26		요 13-17	
6월4일	금	욘 27-30		요 18-21	
6월5일	토	욘 31-33		행 1-7	
6월6일	주일	욘 34-36		행 8-1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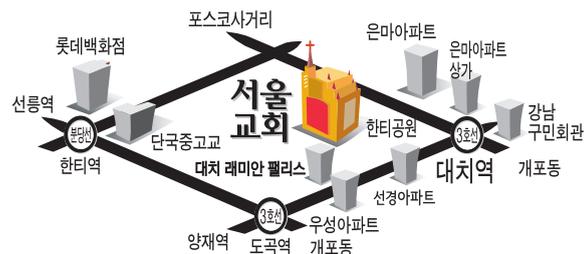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손달익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기도에 힘쓰며, 임직자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된 총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